

“조합원 소통 강화·현장 중심 활동 펼치겠다”

●주영삼 목포시공무원노조위원장

11기 출범식·정기총회...‘일·삶 균형 행복한 직장’ 조성 공직사회 개혁...“경직돼 있는 조직문화 타파에도 최선”

“낮은 자세로 조합원을 섬기며 불의에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의연하게 맞서 나가겠습니다.”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목포시노조)은 2일 “지난달 29일 목포시청 회의실에서 제11기 출범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박홍률 목포시장, 김원이 국회의원,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도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 이영춘 의장, 김태신 본부장,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과 임원진, 공무원연맹 소속 단위 노조 위원장, 공노총 전남본부 안시영 위원장, 연대 노조 위원장,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 이상학, 김정진, 박상완 전직 위원장과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영삼 제11기 목포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목포시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깃발을 세우고 출범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출범 당시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해 사무실이 폐쇄된 채 천막농성을 벌였고 노동조합 탄압 반대를 외치며 조합원 600여명이 상경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위기 때마다 곁에는 조합원들이 늘 함께 했던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며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공직사회는 다시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약성 민원에 시달려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공무원 소식을 접하기도 하는데 결코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기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직 조합원만을 생각하고 한국노총 그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목포시청 회의실에서 제11기 노조 출범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주영삼(가운데) 11기 노조위원장을 취임사를 통해 “낮은 자세로 조합원을 섬기며 불의에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의연하게 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리고 공무원연맹과 연대해 행동으로 쟁취하는 목포시노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주 위원장은 “제11기 목포시노조는 일과 삶의 균형이 조화로운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목표로, 조합원들의 권익 신장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후생복지 강화에도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며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노동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자 한다”며 “청년 공무원들과 자주 만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경직돼 있는 조직문화를 타파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목포=정해선기자



중흥신협, 광주·전남지역 종합경영평가 ‘대상’

중흥신협이 광주·전남지역 신협 종합경영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2일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구 광천동 워더스 웨딩홀에서 ‘2023년 사업 평가 및 2024년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흥신협은 광주·전남 8개 지역 신협 중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려 종합경영대상을 수상했다.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중흥신협은 1979년 5월 1일에 창립해 지난해 12월말 자산 2천500억원,

고객수 1만7천428명, 연체율 0.54%, 당기순이익 12억6천만원, 출자배당 4.5%, 10년 연속 이용고 배당을 실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흥신협은 지난 2016년부터 지역 아동센터와 ‘어바바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옥규 중흥신협 이사장은 “과분한 상을 받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수상을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 들이고 정도경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광주상수도본부, 중대재해 예방 건설공사 안전교육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2일 광주수질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상수도 건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 공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업 재해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김영준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 운영지원팀장이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주제로 강의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재해 현황 및 발생요인별 분석 ▲건설공사 안전관리 체계 ▲건설사고 사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점검 사항 등이다.

상수도 공사의 특성상 도로 굴착 등을 수반하는 소규모 공사 현장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일용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재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및 사업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담당자들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남구,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기관 선정

광주 남구는 2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3-2024년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을 평가했다.

남구는 고독사 예방 방지를 위한 자체 사업인 ‘3-24H 안부시스템’과 주거 위기자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으뜸호 남구 안심돌봄 주택’ 등이 호평 받았다.

3-24H 안부시스템은 관내 17개동의 취약계층 가구와 결연은 맺은 주민 577명이 3시간 이내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한 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응급



조치까지 마무리하는 특별 관리 시스템이다. 남구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창의적인 시책 등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순천교육지원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홍보

순천교육지원청은 2일 “전날 순천만국가정원 개장을 맞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순천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리플릿, 홍보용품을 관광객들에게 전달하며 박람회 주요 내용과 색션 별로 열리는 각종 행사를 안내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교육부, 전남도교육청, 전남도청, 경북도교육청이 공동 개최한다. 박람회는 5개의 색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하동군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 국민에게 알리려 한다”며 “많은 사람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농협 곡성군지부, 봄맞이 환경정화 캠페인

농협 곡성군지부는 “최근 곡성군 곡성읍 일대에서 ‘곡성군 농업 관련 기관 합동 봄맞이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캠페인은 봄을 맞아 농촌 지역을 찾는 도시민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곡성군을 알리고, 농업인에게는 올바른 영농폐기물 배출방법과 불법 소각 방지를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곡성군청, 곡성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곡성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곡성사무소, 농협곡성군지부 등 8개 곡성군 농업 관련 기관장들은 지난 2일 모임을 결성했으며 매일 유사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날에는 농협 곡성군지부의 제안으로 8개 농업 기관 임직원들이 참여해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했다.



안종팔 농협 곡성군지부장은 “곡성 농업 관련 기관의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농민을 위한 마음은 한결 같다”며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영필 기자

돌쇠네 농산물 ‘광주 나눔명문기업’ 13호 가입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사랑의열매)는 2일 “돌쇠네 농산물이 1억원을 기부하며 ‘나눔명문기업’ 광주 13호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식은 박철홍 광주사랑의열매 회장, 조희석 돌쇠네 농산물 대표, 조덕선 SRB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달받은 성금은 광주시 돌봄이웃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조희석 돌쇠네 농산물 대표는 “사회의 일원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나눔 실천을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는 아버지 조덕선 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입을 결심하



게 됐다”며 “제가 보내는 정성이 이웃들에게 희망과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홍 광주사랑의열매 회장은 “앞으로도 광주사랑의열매와 함께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4월 5·18민주유공자’ 故 김광호씨



4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故) 김광호씨가 선정됐다.

2일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故 김광호씨는 1963년 4월2일 생으로, 1980년 당시 광주농업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휴교령이 내리자 나주 남평에서 시위대에 합류해 총기를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

이후 나주경찰서에 연행돼 머리 등을 구타당하고 같은해 7월 석방됐으나 이후 정신이상 증세를 호소하다가 1982년 사망했다.

5·18민주묘지 관리소 관계자는 “故 김광호씨는 제1묘역 2구역 81번에 잠들어 계신다”며 “민주묘지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초록우산 광주본부, ‘새싹학교’ 후원금 전달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는 2일 “전날 광산구청 2층 구청강실에서 이주배경아동의 학습 지원을 위한 ‘초록빛 새싹학교’ 후원금 4천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은영 초록우산 광주본부장, 장은미 광산구가족센터장이 참여했다.

초록빛 새싹학교는 광주 지역 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이주배경아동들의 학습 및 권리 향상을 위해 초록우산 광주본부와 광산구가족센터가 3년째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는 한국어 기초학습, 부모교육, 아동권리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이주배경아동 가정들의 한국사회 이해 및 학교 생활을 지원한다.

또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심리·정서 지원, 진로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영 초록우산 광주본부장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이주배경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 우리 사회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욱 많은 아동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전남풍력산업협회, 풍력산업 육성 포럼

전남도와 (사)전남풍력산업협회는 2일 도청 왕인실에서 제12회 전남 풍력산업 육성포럼을 개최, 특별법 제정 방향, 터빈 등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포럼에는 장중모 전남풍력산업협회장과 전남지역 풍력산업 관계자, 전문가, 풍력 분야 기업 대표, 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여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제22대 국회 출범에 따른 특별법 제정 방향과 전남도의 풍력 산업화 촉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어 배운석 전남도 해상풍력산업과장이 발제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방향 ▲전력계통망 ▲군 작전성 검토기준 ▲배후항만·부지 적기 조성 ▲풍력터빈 등 기자재 공급망 구축을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열린 토론을 벌였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올해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7GW) 지정, 8.2GW 신도사업 해상부 공사 착공 및 준공, 세계 최대 풍력발전터빈 제작사인 베스타스와 터빈공장 설립 투자협약 등 전남 해상풍력산업의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중요한 시기”라며 “기존에 없던 획기적 방식의 포럼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